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후생노동성,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해 1.1조엔 투입 예정

□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약 1.1조엔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“사회보장과 세제 개혁(안)”에 이를 반영할 계획임.

- 일본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한편, 저소득층의 의료·간병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장개혁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음.
- 일본은 공무원, 지역, 직장인, 고령자 등으로 구분된 개별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번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건강보험임.
- 후생노동성은 의료급여의 증가로 재정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이들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인상 대신 정부예산 투입을 통해 공적건강보험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임.

□ 건강보험별 예산투입 규모는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약 5천억엔과 고령자건강보험에 약 6천억엔으로 총 1.1조엔에 달함.

- 지역 국민건강보험은 연간 총 의료급여액이 약 10조엔이며, 이중 약 40%를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지만, 최근 저소득 비정규직 및 일용직, 임시직, 시간제 근로자 등의 가입증가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기반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.
- 고령자건강보험은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납입단계 현역세대들의 고용 및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.

□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부가가치세 증액 등의 세제개혁 추진을 통해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임.

-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투입과 부가가치세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“사회보장과 세제 개혁(안)”을 금년 6월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임.

(니혼게이자이신문 5/17 마이니치신문 5/14 뉴스 종합)